원효부터 中삼계교까지… 불교학 만나볼까

신록의 계절 5월, '주목' 학술서 3選

원효학 지평 확장의 시도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

올해는 원효 스님 탄신 1400년을 맞는 해이다. 다양한 학술행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금, 원효 스님을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서인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가 발간된 것은 우연은 아니다.

이 책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원효사상의 산맥을 등정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학계에서는 원효사상을 주로 한국불교의 맥락에서 연구해온 측면이 강하다. 이는 한국불교계를 풍부하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불교 전체, 즉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맥락에서 원효의 사상을 자리매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교학자 권오민 · 이병욱 · 김도공 · 김성철 · 배경아는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를 통해 한국불교를 넘어 인도 · 중국불교의 주요 사상과 원효 사상을 비교하며 원효 사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권오민은 '원효 교학과 아비달마-화쟁론을 중심으로'에서 원효의 화쟁(和諍)과 초기불전의 멸쟁(滅諍)을 비교해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비슷한 맥락임을 주장한다. 또한 원효의 일심(一心) 개념과 아비달마 불교에서의 일심을 함께 살핀다.

이병욱의 '천태사상과 원효사상'은 천태의 '무애도'와 원효의 '무애행'이 공통점이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천태와 원효의 정토사상은 '유심정토설(唯心淨土說)'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신론소〉와 〈별기〉를 통해 원효 스님의 지관 수행을 분석한 김도공의 '원효, 그 깨달음의 수행체계'에서는 원효 스님의 수행관이 〈유가사지론〉에 있음을 조명하고 있다.



'파계 · 남색' 日불교 계율사

계율에 방울 달기

일본불교를 흔히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대처', '식육'으로 이어지는 '계율경시' 풍조다. 하지만, 일본불교사를 잘 들여다보면 정토진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파들은 승려다운 것, 계율 호지를 이상으로 삼았다. 특유의 '계율경시' 풍조는 메이지 이후에 생긴 것이다.

마츠오 켄지 야마가타 대학 인문학부 교수의 〈파계와 남색의 불교사〉는 일본불교의 계율경시 풍조가 어떻게 비롯됐는지를 '파계'와 '남색'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이자랑 동국대 HK교수가 번역해 발간된 〈계율에 방울 달기〉는 마츠오 교수의 책을 번역한 것이다.

'파계'와 '남색', 적지 않은 불교도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단어를 근간으로 마츠오 교수는 지계를 꿈꾸었던 고대, 지계와 파계 사이에서 고뇌한 중세, 그리고 그 고뇌로부터 탄생하여 근세 이후까지 이어진 일본 불교의 계율 부흥 운동의 흐름을 매끄럽게 풀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불교계에 '계율부흥운동'을 제안한다. "현재 일본불교에도 계율 부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욕망을 끊고 이해에 매진하는 승려의 모습은 새로운 모델을 낳지 않겠습니까. 이런 승려의 모습은 우리 재가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츠오 교수의 이런 제안은 지계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한국불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中 삼계교의 'A to Z'

삼계교 연구

중국의 삼계교는 다소 생소한 종파이다. 삼계교는 남북조 후기에서 수대(隋代)에 걸쳐서 활동한 신행(信行, 540~594)에 의해 창시됐다. 그 혁신성과 대중성으로 인해 수 · 당 · 송대에 걸쳐 약 400년간 크게 번성했다.

당시 정토교와 심한 마찰을 빚기도 한 삼계교는 실로 중국불교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민중을 위한 혁신불교였으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에 끼친 영향력도 상당하였다고 평가된다.

나시모토 테루마 무장야대학 학장의 〈삼계교 연구〉는 삼계교 연구학자 야부키 게이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 그간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총정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가히 삼계교 연구에 관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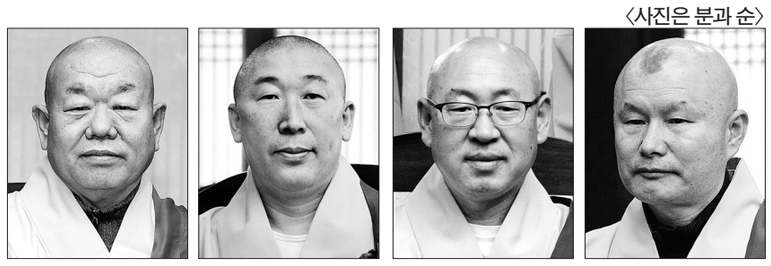
저자는 삼계교의 성립부터 전개, 문헌, 사상구조, 교단 규율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 펠리오 수집의 신출자료인 '돈황한문사본(No.2849)'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계교의 사상이 삼계교도의 종교적 실천에 어떻게 구체화됐는지를 조명하는 부분은 눈길을 끈다.

중국불교사 속에서 민중지향적이자 삶 속에서의 구체적 실천을 중시한 삼계교에 대한 총체적 연구 성과를 담은 이 책은 한국불교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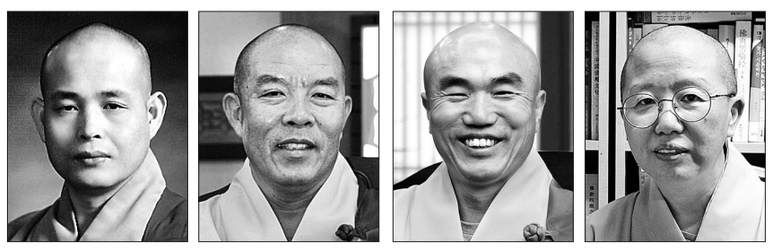
문화재위 모든 분과에 스님들 포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스님 8명 위원 위촉

〈사진은 분과 순〉



정현 스님 (건축분과) | 덕문 스님 (동산분과) | 정념 스님 (사적분과) | 진화 스님 (천연기념분과)



정각 스님 (매장분과) | 보광 스님 (근대분과) | 일감 스님 (민속분과) | 명법 스님 (세계유산분과)

새롭게 구성된 제28대 문화재위원회에 스님들이 8개 모든 분과에 포진됐다.

문화재청은 5월 1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서 문화재위원 78명, 문화재전문위원 17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분과별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이번 문화재위원 위촉에는 건축 · 사적 · 매장 등 8개 분과에 1명씩 스님들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스님 문화재위원으로는 △건축분과: 정현 스님(조계종 문화부장) △동산분과: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사적분과: 정념 스님(조계종 백년대계본부 공동본부장) △천연기념물분과: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매장분과: 정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근대문화재분과: 보광 스님(동국대 총장) △민속분과: 일감 스님(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세계유산분과: 명법 스님(은유와마음연구소) 등이다.

또한, 문화재 전문위원에도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팀장(근대분과), 박기련 불교신문 주간(세계유산분과)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2명이 위촉됐다.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로, 8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의 지정(등록) · 해제 · 문화재 현상변경 · 역사문화환경 보호 · 매장문화재 발굴 ·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조사 ·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28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이배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강철 조선대 명예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위촉된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있는 인사들로, 연임이 아닌 처음 위촉된 위원들이 절반 이상"이라며 "문화재전문위원 역할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맡았던 경력이 있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원효 탄신 기리는 학술대회 잇달아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굵직한 학술대회가 잇달아 개최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오는 5월 19~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 -원효 찬술문헌의 계보학적 성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 · 중 · 일 삼국이 연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앞서 중국서 학술대회가 열렸으며, 6월에도 기념전과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 안성두 서울대 교수, 이시이 코세이 일본 고마자와대학 교수, 모로 시게키 일본 하나조노대학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김성철 동국대

동국대 HK연구단 19~20일
원효 찬술문헌 계보 주제로
한국불교학회 오는 12일
'원효-새로운 이해' 춘계대회

경주캠퍼스 교수, 박광연 동국대 교수, 야오잉 중국 푸탄대학 교수, 남동신 서울대 교수, 장웬량 중국 인민대학 교수, 요르그 플라센 독일 보훔대학 교수, 노로 세이 일본 류코쿠대학 교수 등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문 발표 후에는 김종욱 HK연구단장을 좌장으로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HK연구단은 "원효 찬술문헌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통해 원효의 불교사상이 갖는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위상과 그 현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21세기 불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 12일에는 원효 스님 탄신을 기념하는 한국불교학회의 춘계학술대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다. 한국불교학회는 지난해부터 원효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불교학술진흥상을 공모했고, 지난 4월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상 수상자인 이수미 동국대 HK교수의 '〈금광명경〉의 삼신설에 대한 원효의 이해'를 비롯해 최우수상 수상자 법장 스님, 우수상 수상자 담준 스님 · 지혜정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종교와 음식의 상관관계는

종문연, 20일 정기 심포지엄

종교와 음식문화의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는 5월 20일 삼경교육센터 5층에서 '종교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종교'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교를 비롯해 일본 신도, 유대교, 토착신앙 등에 내포된 음식문화의 양상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불교 분야에는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의 공만식 씨가 '마늘에 담긴 불교사: 음식의 내재적 본질에서 바르나(Varna)적 함의까지' 주제 논문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김미숙(동국대)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
명상힐링학교 모집
❶입 학 : 양력 5월 6일 (토) 2시 입재
~ 5월 21일 (일) 10시 회향
❷기 간 : 15일
❸학 비 : 30만원
❹조 건 : 65세까지의 남 · 녀,
조계종 출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선착순 남 · 녀 각 12명
(남자는 삭발함)
❺지 도 : 無一 우학 큰스님
❻과 목 : 참선, 무문관체험 (1박 2일),
명상힐링, 특강, 울력,
큰스님 마을상좌 수계,
목탁염불습의, 발우공양, 큰절 견학
❼문 의 : 010-8852-0075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감포도량 법사스님)
※ 국내 · 외 한국불교대학 지원 모집
기도성취 및 천도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원장 주석사찰
왕방산 금불사
주지 행허 보경
신 도 일 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왕방로 271-18
TEL 031-544-1195
010-6712-8485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5월 31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